

'보이지 않는 손' 읽기

글. 김월희 서울대학교 중어중문과 교수

역사는 미래를 일러준다. 그것은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 가운데 되풀이되고 유형화되는 것의 변주이기 때문이다. 이는 숙명론을 옹호함도, 인간의 창의력을 부정함도 아니다. 그것들과는 무관하게 역사의 고찰을 통해 미래 예측이 가능함을 말하고자 할 따름이다.

역대 중국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왕조가 초창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웅비를 시작할 즈음은 대략 건국 후 두 세대 정도가 지날 무렵이었다. 사회주의 정부 수립 후 60년가량이 된 중국은 초창기의 극좌적인 사회주의 실험을 버터내고, 묵하 세계 유일의 강대국을 향해 야심찬 비상을 꾀하고 있다. 유럽 면적의 약 1.8배, 세계 인구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그들의 현재와 과거가 궁금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역사는 머지않아 그들이 전성기를 구가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이, 중국은 어느덧 우리 삶의 '상수常數'가 되었다. 무엇을 전공하든 또 무엇으로 먹고 살든 간에, 이젠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실패 확률이 꽤 높아지는 시대가 되었다. 중국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시대를 살고 있는 셈이다.

아침 — 광활한 영토

중국의 아침은 같으면서 또한 다르다. 모택동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자금성, 그곳을 밝혀주는 태양은 시장경제의 상징인 상하이 푸둥지구도 동시에 밝혀준다. 사막의 어둠을 물리치는 태양은 어김없이 도회지의 일터도 비춰준다. 이슬 젖은 노숙자를 데워주는 햇살이 저택의 뜨락을 따사롭게 비추듯, 아침을 열치는 태양은 어느 곳에서든 동일하다.

그러나 자금성에서 맞이하는 아침과 푸둥지구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다르다. 논밭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도회지의 일터에서 맞이하는 그것과 다르며, 청량한 산사의 아침은 북적대는 시장의 아침과 다르다. 사막을 횡단하며 맞이하는 아침이 관광지에서 마주한 아침과 다르듯이,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이의 아침은 차디찬 역사에서 밤을 지새운 민공(民工, 농촌 등에서 도시로 흘러든 일용 노동자와 노숙자)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겨울인 곳과 여름인 곳, 사막과 아열대가 하나로 묶인 중국.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고, 이념과 이윤이 아슬아슬하게 얹혀있는 중국. 그런 '중국'의 아침은 분명 하나이지만, 그 속의 아침은 이처럼 다채롭다. 다만 '하나의 중국'이란 정책 아래 그러한 다채로움이 은폐된다. 베이징에 먼동이 터올 때 파미르 고원은 여전히 깜깜한 밤중이건만, 그곳의 시계는 새벽 6시를 가리킨다. 하나의 중국 안에 시간이 서로 다른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해가 떠야 아침이라는 평범한 진리는 베이징이 아침이면 중국 전역이 아침이어야 한다는 이념 앞에 무기력해진다. 이념과 이윤이 부딪히고, 첨단과 전통이 교차하는 곳에선 서로 다른 아침이 교차할 수밖에 없음이 외면당한다. 삶의 배경이 다르고, 딛고 서있는 사회적 위상이 다른 이들에겐 아침의 의미도 서로 다름이 도무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의 중국'을 앞세우는 이념 앞에 동서로 5,200여km, 남북으로 5,500여km에 펼쳐진 드넓은 영토가 왜소해진다. 그 광활한 대륙에는 그저 하나 된 중국이 있을 따름이다.

낮 — 엄청난 인구

엄청난 인구는 그 자체로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무진장한 시장이 되기도 한다. 인해전술을 경험했던 우리가 중국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탐닉하는 것은 '엄청난 인구의 정치 경제학'을 몸소 겪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중국의 낮은 13억을 상회하는 사람들로 복적댄다. 빈터는 세워놓은 자전거로 점령되고, 자동차는 빼곡한 인파 속을 가까스로 뚫고 나온다. 변방에서 또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든 값싸고도 풍부한 노동력은 '건설 중'인 중국을 밑바닥에서 떠받친다. 수억 명에 이르는 기층 인민의 지지가 사회주의 혁명의 기반이 되었고, 일본의 두 배가 넘는 구매력이 중국식 시장경제의 초석이 되었다.

땅이 넓고 사람이 지천인 중국, 이렇듯 그들의 과거와 현재는 엄청난 인구가 펼쳐낸 파노라마이다. 모택동으로 상징되는 사회주의혁명이 그러하고, 맥도날드로 상징되는 개혁개방이 그러하다. 도시의 첨단 외곽선이 그러하고, 변방에 놓인 신작로가 또한 그러하다.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모택동 동상은 무명의 혁명 전사들이 쌓아올린 기념비일 따름이고,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력의 표지인 자금성은 인민의 피땀 어린 상징물일 따름이다. 비록 전면에선 어느 한 개인이 부각될지라도, 그 근처에는 늘 엄청난 인구에서 발원하는 무한의 힘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개인은 단지 자신을 드러낼 뿐 아니라 자신을 구축해준 전체를 표상한다. 또한 자신 안에 스며든 타자도 드러낸다. 야외촬영을 하는 예비 신혼부부는 거울에 비쳐진 기층 인민의 영상이고, 맑게 웃는 소수민족은 한족漢族의 음화negative image이다. 그냥 회족回族, 장족藏族이 아니라 소수민족의 하나로 호명되는 순간, 그들은 한족의 모습을 동시에 표상한다.

이렇게 중국의 낮은 하나이면서 전체이고, 또한 타자인 개인들의 세상이다. 다만 그들은 덩 아무개, 후 아무개 등으로 불리며, 독립된 개인의 형상으로 우리 앞에 설 뿐이다.

저녁 — 유구한 역사

광활한 대지에서 엄청난 인구가 펼쳐낸 아침과 낮은 저녁이 되어 역사로 저장된다. 그리고 역사는 다시 드넓은 대륙의 지평선 위로 새로운 아침을 띄운다. 그렇게 중국은 수천 년을 이어왔다.

역사는 그냥은 보이지 않는다.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자세히 볼 때 비로소 역사는 자신의 모습을 밝히 드러낸다. 저녁 8시임에도 여전히 밝은 거리의 풍경이 소수민족과 변경의 역사를 말해주듯, 앙증맞게 주먹을 내지르는 아이의 모습이 사회주의 중국의 현주소를 말해주듯, 역사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자 하는 이에게만 자신을 드러낸다. 저녁이 어둠으로 사위를 가리듯이, 역사도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바로 그런 역사 속에 존재한다. 드넓은 대지와 엄청난 인구 그 자체가 중국이 아니라, 그것에 스며든 역사 속에 중국이 존재한다. '중화中華'라 불리는 중국문화는 그런 역사의 핵심이다. 역대로 중국은 결코 지리적 위치를 근거로 규정되지 않았다. 대신 중화문화의 수용 여부가 중국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잣대가 되었다. 그래서 소수민족이 사는 변방은 그 자체로는 결코 중국이 아니지만, 중화문화가 이식되는 순간 그곳은 엄연한 중국이 되었다. 마치 티베트의 천장天葬이 중국의 역사가 된 것처럼, 중화문화가 전파된 곳은 모두 중국으로 여겨졌다.

몽고족의 원조元朝, 만주족의 청조淸朝처럼 중원을 점령했던 이민족 정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중원 통치를 위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적으로 수용했기에, 그들은 중국 역사의 당연한 일원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단일하지 않다. 오늘의 중국이 아무리 단일한 흐름과 공통의 정체성을 강조하지만,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자 하는 이에게 만큼은 어둠으로 가려진 다채로운 중국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이 책에 실린 사진처럼, 역사로 저장되는 저녁은 지역마다 또 사람마다 다른 표정을 짓는다.

세 가지의 '보이지 않는 손'

광활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 그리고 유구한 역사. 이 셋은 대대로 중국을 만들어온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오직 보고자 하는 이에게만 묵묵히 자신을 드러낼 뿐이다.

따라서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탐사해야 한다. 보이는 것으로 보인 것만 아는 것은 전성기에 접어든 둔 중국에 대해 거의 모르는 것과 다름없다. 마치 하나인 양 인식되는 중국, 단지 단절된 개인으로만 여겨지는 그들 그리고 급속한 서구화와 눈부신 산업화 와중에 폐기처분된 듯 보이는 중화의 역사와 문화. 보이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충실하게 재현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을 은폐하고 현상을 왜곡하기도 한다. 그런 은폐를 뚫고 왜곡을 넘어설 수 있는 통찰력. 이를 갖추기 위해 우리가 되뇌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탐사하기 위한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중국이 강성할 때면 한반도는 어김없이 그들의 우산 아래 놓였다. 따라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만을 안다 하여 중국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마땅히 '보이지 않는 손'과 마주쳐야 한다. 그것이 전성기에 막 접어든 중국 옆에서 사는 작은 나라, 한국의 인민이 살아남기 위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일 것이다.